

'학교 공간혁신' 인식 변화 촉진

전북교육청, 오늘 워크숍... 담당자 등 140여명 참여 사례 발표·정보공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3일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영역 단위 학교 공간혁신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24일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열린다.

이날 워크숍에는 14개 시·군 교육

지원청, 영역단위 학교 공간혁신 대상 학교 담당자 및 선도교원 등 140여 명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사례발표를 통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의 이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 공유 및 방안 마련, 학교별 추진 방향 협의·정보 공유 등이다.

특히 2019년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한 군산화천초(정지영 교사), 군산 회현중(김주희 교사), 군산 신북중(이연호 교감)이 사례발표를 통해 학교 공간혁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관리자 및 교사, 행정실장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추진자 간 분임별 토의 및 토론 시간을 마련해 그룹별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 요구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서 "학생과 교사 등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건축 등 전문가의 협업으로 학교를 공간형 공간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 송경진 교사' 진실 왜곡말라

전북 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 성폭력 가해자 낙인 반발

"뜯김없는 단체들이 나서서 '스쿨미투' 운운하며 마치 고 송경진 교사를 '성희롱'이란 단어도 모자라 '성폭력(법)'으로 또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는 23일 도교육청에서 '고 송경진 교사와 유족을 욕되게 하는 가짜 미투스물 옹호자들은 가라' 기자회견을 열어 "송경진 교사의 사망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인을 성폭력(법)'으로 낙인찍어 지속적으로 욕보이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괴해 아이들 입장'을 내서 위 유족 가족, 지인, 언론 등을 2차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맞게 반전을 도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이다"며 "성인지감수성"이란 허울 좋은 단어를 고 송경진 교사 사건처럼 아닌 것을 맞다 라는 것에 사용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학생들과 교사들을 투쟁과 갈등구조로 몰고 가려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지난 6월 16일 법원의 '공무상 순직' 판결과 인사혁신처의 '합소포기 재판결과 존중'으로 고인의 명예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온데간데 없고 '합소'를 운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가짜 미투스물 옹호론자들이 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에

특히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는 "고 송경진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참회해서 피하려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죽음으로 항변했다는 점이다"며 "이 사건 논쟁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교사와 도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 포함)'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학교를 '갈등과 계급적 투쟁의 장소'로 보고 '강자와 약자'가 서로서로 억압하고 감시하는 곳이 아닌 따뜻하고 열린 만남의 사랑과 존중 배려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

수시전형 진학지도 역량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및 진학부장의 수시전형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부터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도내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및 진학부장 등 130명을 대상으로 입시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건제일고 임병훈 교사의 내일교육 변화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도 주요대학 지원전략 안내 ▲대학교 최승후 교사의 2021학년도 수시대비 학교 활동과 연계한 학생부 기록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안내 ▲대입지원단 특별 협의회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 대입지원단과 진학부장의 역량을 키워 단위학교의 수시전형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는 23일 도교육청에서 '고 송경진 교사와 유족을 욕되게 하는 가짜 미투스물 옹호자들은 가라' 기자회견을 열어 "뜯김없는 단체들이 나서서 '스쿨미투' 운운하며 마치 고 송경진 교사를 '성희롱'이란 단어도 모자라 '성폭력(법)'으로 또다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청소년들 도박문제 예방·치유한다

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오남경)는 전북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청소년 도박문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도박문제가 10.6%(전국 3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도내 청소년에 대한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문제 치료프로그램은 출석 인정되는 교육과정으로 매일 셋째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도박중독교육, 치유프로그램, 도박중독 대안활동, 재정법률교육, 회복의 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참여방법은 도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중 도박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한해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남경 센터장은 "청소년의 경우 발달과정에 호기심과 충동성으로 인해 도박에 쉽게 접할 수 있으나 빠져나오

구분	일정
1차	7.15~17 09:00~16:00
2차	8.19~21 09:00~16:00
3차	9.23~25 09:00~16:00
4차	10.14~16 09:00~16:00
5차	11.10~12 09:00~16:00
6차	12.15~17 09:00~16:00

세부내용
 - 1일차 : 도박중독교육&치유프로그램
 - 2일차 : 재정법률교육 & 치유프로그램
 - 3일차 : 도박중독대안활동1,2

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유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북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치료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2학기 '대면+비대면' 혼합수업

학생 선택권 보장·강의의 질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학기 대면과 비대면수업을 혼합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이와 같은 2학기 수업 운영방안을 확정, 22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운영방안에 따르면 2학기 수업에 대해 대면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비대면을 결합한 '혼합수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3학점 수업의 경우 2시간을 비대면으로, 1시간을 대면으로 또는 1시간을 대면, 2시간을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강인원이 수용인원의 절반(5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를 나눠 운영하건, 주차별로 비대면과 대

면수업을 번갈아가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론이 중심이 되는 교과목의 경우 수강인원이 수용인원의 50% 이내면 대면수업을 가능토록 했고,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대면수업을 하도록 했다. 이론을 제외한 실험이나 실기 설계, 실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모든 수업은 교수와 학생이 희망할 경우 '대면+비대면' 혼합도 가능토록 했다.

학생 수강 편의와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학생들이 미리 수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교원이 희망하는 수업방식을 공개하도록 한 것.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을 통한 교수-학생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동영상을 전적으로 활용하거나 과제만으로 이뤄지는 수업을 금지토록 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엔 주당 1시간 이상은 실시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는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은 사전 강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일일 확진자 수 100명 이상)로 격상될 경우에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9월 개강 이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수업이 혼합된 수업 방안을 마련했다"며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IT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